

월간 기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2019. 4.16-20)를 마치고
강사 김정복 목사와 담임 박일영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시로 드리는 기도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김정복	2
사도신경	새 번역 사도신경 해설	이종운	4
소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기도학교	7
산상수훈강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김정복	8
기독교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	기도학교	11
교리강좌	로이드 존스 교리강좌(2)	정은표	12
아리랑 찬송가	기도학교	17
기도학교 시리즈(3)	성경에 나타난 죄	김정복	18
주제별 기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라	김정복	20
선교보고	아르헨티나 공화국(1)	김순희	22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김정복 목사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지순(至純)한 날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 순간 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살게 하소서 (창1:31)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깨끗한 날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시간 시간 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청순(淸純)한 날입니다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날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그 누구도 살아 보지 않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중한 날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 밝아오는 새로운 날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신비한 날입니다.
이 복되고 신비로운 날에
주님께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온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은
친히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새 번역 사도신경 해설(4) (Lecture on the Apostles' Creed)

The Rev. Lee Jong-Yun, Ph.D / 서울교회 원로목사



아래의 새 번역 사도신경(1)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CCK) 두 연합기관이 사도신경 새 번역 특별위원회를 회원 교단 추천인사로 각각 구성하여 2004년 12월 3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1)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 2)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가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III.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가?

17C 말 영국에서 시작된 이신론(Deism)은 하나님 창조는 믿으나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치 않으시고 이 세상은 그 나름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계와 더 이상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세상과 역사의 과정에 관여하셨고 지금도 관여하신다고 가르친다. 이것을 섭리(攝理, Providentia, Providence)라 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으나 섭리를 믿지 않는 이신론자들의 후예가 오늘

도 교회에 많이 있다.

또 다른 오해는 창조와 섭리의 구별없이 이 세상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자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섭리를 받아드리는 것 같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섭리가 아니라 섭리의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헤겔의 범신론)

1. 섭리 개념의 이해

섭리를 생각할 때 전능하시고 항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한다. 전능하신 능력이란 하나님의 본유적 능력, 창조시 사용하신 능력을 말한다. 이 창조능력과 동일하신 능력으로 섭리를 하신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항존적인 능력이다. 항존적 능력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능력이 항존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붙드시는 손길을 믿고 우리의 길을 걸으며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항존하시는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일은 다음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i) 유지 또는 보존(preservation, conservatio)

ii) 통치(government, gubernatio)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11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라고 했다.

보존과 통치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섭리적 사역을 분명케 한 것이다.

세상을 유지, 보존하신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붙드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존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존재의 시작에서 만 아니라 그 지속에 있어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다. 자율적(autonomous) 존재가 아니고 타율적 존재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상이다. 생명, 존재, 움직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

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 이다’(시104:27-29)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9:6)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

이를 하나님의 경영 또는 경륜(oiconomia, economy) 또는 하나님의 통치(gubernatio, government)라고도 한다. 이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통제되고 있다. 인간 역사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단2:21)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단4:25)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엡1:11)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나타난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암9:1-4)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이 섭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가장 작은 사소한 것도(마10:29-31), 우연처럼 보이는 것(잠16:33, 왕상21:19-24) 선한 일(빌2:13) 악한 일(욥1:11) 자원해서 나타나는 자유스런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의 형성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WMC 기도학교

65. 제 5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5 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66. 제 5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5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67. 제 6 계명이 무엇인가?

제 6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8. 제 6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6 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의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보전하라 하는 것이다.

69. 제 6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6 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70. 제 7 계명이 무엇인가?

제 7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1. 제 7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7 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72. 제 7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7 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신/간/안/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2) *How You should pray*

저자 김정복 목사



남을 비판하지 말라

김정복 목사 / 산상수훈강해 저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마7:1-5)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 1) 여기서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네테”(krinete, judged)는 단순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의 충고가 아니고,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 3)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 4)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킹제임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공동)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표준새 번역)로 되어있다.
- 5) 따라서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남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남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2.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어떻게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뺄 수 있을까?

- 1)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자기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
자신의 얼굴은 거울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울에서는 실체의 반대편이 보이고, 사진은 실체의 과거만 볼 수 있다.
- 2) 또한 자신의 양심으로는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이나, 죄악은 정확히 보지 못한다.
나 자신의 실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확한 나의 모습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자신의 결점과 과오와 죄악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 3)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성경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나 자신에게 남에게 비판이나 판단을 받을 만한 잘못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 4)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을 하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 5)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자기에게 허물이 있으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자는 외식하는 자이다.

3. 그러면 어떻게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뺄 수 있는가?

- 1)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주신다.

- 2)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3)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할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죄의 목록들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요16:8)
- 4)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은혜 안에서 사하시고 깨끗케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고 도말하신 나의 모든 죄들을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아니 하신다(요일1:9, 사43:25, 램31:34, 히10:17-18)

4.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난 후에, 어떻게 남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는가?

- 1)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 2) 남의 눈에서 티를 빼는 방법은 남을 비판하거나 헐어리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 3)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의 눈 속에서 티를 뽑을 수 있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남의 눈 속의 티는 하나님의 사랑(아가페)으로 뽑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10:12)
- 4)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뽑아야만, 내 이웃의 눈 속의 티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덮어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

존 칼빈 지음 / 이형기 박사 옮김

11. 도적질하지 말라.

- (1) 우리는 상호간의 재산을 갈취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받는다.
- (2)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노략하고 억압하는 모든 강도짓들과 무죄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종류의 사기와 노략질은 물론 온갖 간계와 속임수를 금해야 한다.

12.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 (1) 주님께서는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나쁜 언동이나 손상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웃을 해치는 모든 거짓을 금지한다.
- (2) 이 계명은 거짓증거에 의하여 이웃을 해치는 혀를 거거하는 계명이다.

13.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1) 주님께서는 이 계명으로 사랑에 의하여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거거하신다.
- (2)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다른 계명들이 금지하는 사랑의 규범에 반대되는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십계명은 보편적이며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주님은 이웃을 위한 사랑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9. 율법의 요약

- 1)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두 조항으로 요약된다고 가르치신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2) 주님은 이와같은 해석을 율법 자체에서 취하셨다.
처음 것은 신6:5에서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신19:18에서 취하셨다.

로이드 존스 교리강좌(2)

개혁신앙 발행인 / 정은표 목사 제공



계시(Revelation)란 무엇인가?

1. 하나님에 대한 의식

성경교리에 대한 모든 고찰은 분명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즉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와 싸워야 한다. 이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런 신에 대한 의식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이방종교를 보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종교로 표출된다.

2.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한 길에 직면한다. 이 중 한 가지는 불가능한 길이며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 타락한 본성에 의해 본능적으로 인간 자신의 노력과 추구로 찾으려는 두 가지 방법

(1)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을 따름 (본능과 직관 사용)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지식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에 존재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적인 빛(inner light)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직관적 방법. 주로 사교집단과 신비주의자들에서 발견된다.

퀘이커교도(내적인 빛 즉 inner light를 추구하며 이를 성경말씀보다도 우선시함) 리차드 포스터는 퀘이커교도임. 관상기도 등 가톨릭 신비주의에 근거한 방법을 주장

(2) 인간 이성과 지혜의 이해에 근거하여 찾음 (이성과 지혜 사용)

자연과 창조부터 시작하여 추론하거나 역사의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음

도덕논증법: 사람이 선을 인식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엔가는 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논리

이러한 모든 방법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간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죄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이성이나 직관으로 알 수 없으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모든 지적, 감정적 기능이 자연적인 악의에 의해 영향 받은 상태에서 작은 인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이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고전 1:21)

2)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길 기뻐하실 때에만 인감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근본원리로 규정해야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啓示)는 이렇게 정의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 사역, 뜻,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감추는 모든 베일을 벗기는 것이다.

3)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하나님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1) 일반계시

하나님은 자연과 피조물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으며 이는 자연을 관찰하고 추론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이성과 지혜 사용) 인간의 생각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다.“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19,20)

자연의 규칙과 인류 모든 역사 즉 사계절이 바뀌는 것, 해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비를 내려 곡식의 싹을 틔우고 햇빛으로 만물에 생명을 공급 하시는 것 등 모든 창조물은 그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모두가 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이며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섭리의 질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다.

인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 history = his(jesus’s + story)

그러나 일반계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롬 1:21,22) 이는 우상숭배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불가능 하다.

(2) 특별계시

오직 성경에만 나타난 계시를 말한다. 성경이외의 특별계시는 없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과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계시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4) 성경에 나타난 특별계시의 방법

(1) 신적현현 (theophany, 하나님의 나타나심)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 나무속에서 나타나심이 그 예이다. 신적현현을 이해 할 때 우리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을 반드시 이해하여야한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사 갈라진 바위틈에 그를 두시고 그를 두 손으로 덮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나서 지나가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 부분만 보도록 허락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은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용어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행동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야 했다는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그분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있도록 잠시 볼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다.

(2)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에 대한 모든 언급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주님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세상에 나타나셨다. 주님은 계시를 주기위해 특정한 모습을 취하셨고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도 세상에 나타나셨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기드온이 미디안족속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숨어서 밀 틀이 아닌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때에 언약의 사자(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셨다.

(3) 직접적인 말씀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4) 기적과 표적과 기사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된다.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등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다.

(5) 꿈과 환상

욥의 꿈과 환상(욥 33:15,16),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 등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특정한 것을 말씀하시거나 경고하셨다.

(6) 영감(inspiration)

계시의 방법 중 가장 독자적인 범주에 해당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 기록되어있다.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벧후 1:21)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은 예언의 기초임을 알 수 있다.

5) 특별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보여준다.

특별 계시 중에서도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부분이야 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부분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과 목적은 이교도였던 아브라함에 이르러 특별하게 성취되었

다. 이어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사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속사의 사건들은 모두가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이며 역사의 초점이다.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갈 4:4,5)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역사가 역사의 중심점이며 초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외의 인간 역사는 모두가 빛을 잃고 보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부활을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행위로 강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과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택한 자들에게 계시한 것이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은 광채요 영광이시며 궁극적인 계시이시며 위대한 구속 사역의 본질이신 자기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을 포함시켜야 한다. 불의 혀가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은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행동의 일부였다.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자신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임하신 중대한 행동이었다.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주어졌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곧 그의 친구라 부르는 자에게도 그분의 비밀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분의 비밀과 하나님 자신의 때를 가르쳐주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 성경의 많은 계시는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로 주어졌다. 명제적 진리란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진리와 교리에 대한 진술이 성경에 있다는 의미이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모두가 다 명제적 진리로 되어 있다. 율법을 주심으로 자신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다.

바르트 신학은 성경의 이해가 인간 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제적 진리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며 이것이 성령의 조명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성경관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우리는 이제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성경의 주장을 믿고 그 권위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에 대해서는 다음 제 3장에서 공부하기로 하겠다.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 님 - 아 - 버 - 지 - 사 - 랑 - 해 - 요 - - - -
 예 - 수 - 님 - 예 - 수 - 님 - 사 - 랑 - 해 - 요 - - - -
 성 - 령 - 님 - 성 - 령 - 님 - 사 - 랑 - 해 - 요 - - - -
 할 - 렬 -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 루 - 야 - - - -



하 - 나 - 님 - 아 - 버 - 지 - 고 - 마 - 위 - 요 -
 예 - 수 - 님 - 예 - 수 - 님 - 고 - 마 - 위 - 요 -
 성 - 령 - 님 - 성 - 령 - 님 - 고 - 마 - 위 - 요 -
 할 - 렬 -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 루 - 야 -



나 - 를 - 위 - 하 - 여 - 독 - 생 - 자 - 주 - 신 - - - -
 나 - 를 - 위 - 하 - 여 - 십 - 자 - 가 - 지 - 신 - - - -
 나 - 를 -위 - 하 - 여 - 기 - 도 - 하 - 시 - 는 - - - -
 할 - 렬 - 루 - 야 - 할 - 렬 - 루 - 야 - - - -



하 - 나 - 님 - 아 - 버 - 지 - 감 - 사 - 해 - 요 -
 예 - 수 - 님 - 예 - 수 - 님 - 감 - 사 - 해 - 요 -
 성 - 령 - 님 - 성 - 령 - 님 - 감 - 사 - 해 - 요 -
 할 - 렬 -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 루 - 야 -

성경에 나타난 죄

김정복 목사 / 기도학 교수



3.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

가롯 유다는 마귀가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즉시 죄악된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므로, 사탄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그 후에 가롯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였으나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죽었다.

- 1)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13:2)
- 2) 가롯 유다의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요13:27)
- 3)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마26:14-16)
- 4) 가롯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만 잘못을 뉘우친 후에 목매어 죽었다(마27:3-5)

○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13:2)

○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요13:27)

○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마26:14-16)

○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마27:3-5)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닭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 1)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 2)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 3)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4) 이때에 닭이 우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마26:69-75)

가룟 유다는 죄악을 범한 후에 비록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목메어 죽음으로 저주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으나, 닭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한 통곡과 회개한 베드로는 크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베드로의 죄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26:69-75)

■ **살롬 장애인 선교회(박모세 목사) 산상 기도수련회(2019. 4. 5-6)** ■
 장소 : ANC 수양관, 강사 김정복 목사와 기도하는 성도들



신/간/안/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1)
How You should pray

저자 김정복 목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라

김정복 목사 / 기도학 교수



출애굽기 34:8-9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 하옵소서 이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는 말씀이 있고,

열왕기상 18:41-42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에스라 10:1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전(殿)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는 학사 에스라가 땅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며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욥기 1:20-21을 보면, **욥이 일어나 걸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

또한 **마가복음 14:33-35**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밤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간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세, 엘리야, 에스라, 욥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앞에 기도하셨다. 땅에 엎드려 기도한 그의미를 생각해 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臨在)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린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매 급(急)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

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삼상 18:1)을 이루실 것을 믿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과 대결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이들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냇가에서 다 죽인 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왕상18:1)를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셋째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니라”(에7:6)하신 말씀에 있다. 참회개운동과 참신앙운동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넷째로 욥은 사탄의 시험(욥1:11-12)으로 갑자기 자녀 10명과 온 재산을 잃고 가정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였다(욥1:20).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욥1:22).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밤 겿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이지만,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바른 기도의 삶과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으로도 사료된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온 밤을 새워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기도 할 때에는 우리의 몸만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땅에 엎드려 두려움과 떨림과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공화국 (1)

(6/8-26/2018)

WMC 국제기도학교 / 김순희 사모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남아메리카 대륙 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23개의 주와 자치시 1개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주요 도시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바이아블랑카, 마르델플라타 등이 있다.

동쪽의 대서양과 서쪽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넓으며,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나라이다. 또한 스페인어 사용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며, 백인이 국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로,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

아르헨티나는 북쪽으로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가, 북동쪽으로는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서쪽과 남쪽으로는 칠레가 있다.

2018년 6월 8일 밤에 LA공항을 출발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6월 9일 토요일에 도착하였다. 김정복 목사는 도착한 6월 9일 저녁부터 떠나기 전날까지 한인교회 선교관에 머무르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크고 작은 현지인 교회들을 오가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은퇴한 이삼선(이정숙사모) 선교사와 동행하였다.

사역을 모두 마치고 LA로 돌아올 때에 필자의 여행 가방이 분실되었다. 무엇보다도 성경과 김목사의 참고용 교재들과 필자가 기록한 중요한 사역기록노트 등이 분실되어 안타까웠다. 선교보고를 해야겠기에 아르헨티나 임형만 선교사에게 다시 연락하였다.

임 선교사와 9일간 방문한 교회들과 목사님들 성함은 임형만 선교사가 알려 주었고, 이재범 선교사와 동행한 선교사역에 관하여는 이은영 사모(쉐퍼드신학교 이재범 학장 사모)님이 보고해 주셔서 그대로 전달하기로 한다.

우리가 도착한 6월 9일 토요일에는 오후 4시에 센트로 화밀리아르 끼리오 (침례교회-알베르토 리소목사 담임)에서 김정복 목사의 첫 번째 말씀 잔치가 있었다. 크고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였다. 리소 목사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뻐함을 보고 피곤함도 잊을 수가 있었다.

기도 세미나 후에 리소목사 사모님과 성도들이 준비한 석식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리소 목사님은 내년 7월에 집회를 다시 준비하자고 제안하였다. 김 목사의 항공료는 리소 목사님이 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6월 10일 주일에도 센트로 화밀리아르 끼리오 교회에서 대예배를 인도하였다.

6월 11일 월요일에는 일정을 비워놓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김 목사가 오찬을 대접하였다. 귀한 대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현지상황과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한 예를 들면, 실제로 그동안 저렴하게 제공되던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몇 백 퍼센트씩 상승하고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힘든 생활을 한다고 한다. 천연가스를 절약하여야 하므로 이 겨울(이곳은 적도 남반부이므로 LA 여름이 이곳은 겨울)에도 히터사용을 절제해야만 한다. 우리가 머물렀던 선교관에서는 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 선교사와 사모님, 김 목사와 필자에게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준 소망교회 원 중권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6월 12일에는 산따 브리히다(모레노) 지역에 있는 예수 선교 교회(헬리빠 웨라이라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6월 13일에는 에스꼬바르 지역에 있는 센트로 화밀리아르 크리스티아노(크리스찬 가족 센터교회) 오순절 교회(엔리께 꾸르스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저녁 식사로 멧돼지 고기를 대접받았다. 1986년 대학생들을 인솔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 목사는 그 해에 멧돼지 떼와 충돌한 차가 전복되어 크게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담임목사의 아들 죠나단은 이번 멧돼지 고기를 먹음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하여 함께 웃었다. 휴머를 잃지 않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훈훈하지가 않았다. 교회가 넓어서 그런지 센트럴 히터를 틀지 않고 프로판 가스로 포터블 히터를 틀어서 겨우 냉기만 가시게 했다.



마르틴 학장과 신학생들이 스페니쉬 성경적 기도(김정복 목사 저) 교재를 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월간 기도

◆ 편집인 겸 발행인
김정복

◆ 편집위원
김정복 이정남 최선호

◆ 연락처
WMC School of Prayer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765-7517 (home)
213-500-0962 (cell)
(LG) 070-8635-7114
wmcprayer@yahoo.com
wmcprayer@gmail.com

◆ Website
www.wmcprayer.org

월간기도와 김정복 순회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

미국 및 기타지역

WMC School of Prayer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Pay to the order of WMC)

한국 하나은행, 779-910007-56707, 김정복

이달에 WMC 선교사역에 동참하신 분들

미국 김성훈 김원석(김현경) 김의경 김정복(김순희)
박건(박영자) 서 다니엘 심대식 옥운범(옥미경)
이정남(이현수) 장병현 SD 벨엘교회(김희수 목사)

서울 김선만 김원균 이광순 허연희
자교교회(홍용표 목사)
마드리드 선교교회(현준남 목사)